

강원도 명주군 구정면 언벌리 일대의 중기 석탄기 코노돈트

박수인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요약: 강원도 명주군 구정면 언벌리 일대에는 후기 고생대의 퇴적암류가 넓게 분포한다. 이 지역의 상부 고생대층은 하부 고생대층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연구 지역의 상부 고생대층은 하부로부터 중기 석탄기의 만항층과 금천층, 그리고 패름기의 장성층, 함백산층, 만덕상층 및 언벌리층으로 구분된다. 연구 지역의 만항층과 금천층은 사암, 이암 및 석회암으로 구성된다. 특히 만항층 석회암은 완전히 재결정 작용을 받아 대리암화되어 있다. 이 지역은 심한 지각 변동을 받아 지질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특히 명주군 구정면 언벌리 일대의 만항층과 금천층은 반복되어 분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망덕산 일대와 단경골 일대에 분포하는 회색 내지 암회색 석회암에서 산출되는 코노돈트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들 화석에 근거하여 이 석회암의 지질시대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있다. 이들 석회암에서 산출되는 코노돈트는 *Idiognathodus delicatus*와 *Neognathodus medadultimus* 2종이다. 이 두 코노돈트는 중기 석탄기 지층에서 산출되는 대표적인 코노돈트이다. 또한 이들 코노돈트는 강원도 태백과 충북 단양 지역에 분포하는 금천층과 영월 지역의 판교층에서 널리 산출되는 종이다. 따라서 연구 지역에 분포하는 회색 석회암을 포함한 지층은 태백 지역의 금천층 및 영월 지역의 판교층과 대비될 것으로 판단된다.